

흡연자의 담배갑 경고문구 대한 인식도와 관련 요인

김현숙, 배홍경, 서영성, 김대현, 손경식*, 배인호**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누가 내과의원, **계명대학교 미술학부

연구배경: 흡연자가 금연하면 각종 암, 심장병, 뇌졸중 등의 질환을 줄일 수 있다. 비록 많은 흡연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금연에 성공하고 있지만 아직도 수많은 흡연자들은 금연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흡연자들의 흡연에 대한 인식도와 흡연의 이유를 분석하여 금연 경고문구와 외국에서 시행되고있는 담배갑 경고사진에 대한 인식도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여 금연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방법: 대구시내 흡연 대학생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가상으로 제작한 사진 경고문이 부착된 담배갑을 보여준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결과: 1. 응답자는 남자 81.6%, 여자 18.4%, 나이는 평균 24.4세, 흡연량은 평균 7.1갑년이었다. 2. 한 번 읽었던 담배 경고문구가 기억에 남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49.1%) '보통이다.'(30.7%) '그저 그렇다.'(16.7%) '전혀 그렇지 않다.'(3.5%)였으며 경고문이 금연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질문에는 '보통이다.' (34.2%) '그저 그렇다.' (28.1%) '전혀 그렇지 않다.' (27.2%)로 기억에는 남으나 금연을 하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의견이 우세하였다. 3. 사진경고문을 부착할 담배갑을 보여주고 금연에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49.1%) '보통이다.' (30.7%) '그저 그렇다.' (8.8%) '매우 그렇다.' (8.8%) '전혀 그렇지 않다.' (2.6%)로 경고문구보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4. 흡연의 이유가 있는 군과 없는 군 사이에서 담배갑 경고문구의 효과, 인상적인 정도에 차이가 없었으며, 가상제작 경고 사진에 대한 인식도에도 차이가 없었다. 5. 흡연에 대한 인식도에 따른 금연 광고의 효과 비교에서는 강렬한 금연 의지를 보이는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을 5군으로 분류했을 때 각각의 군에서 현행의 금연광고문구에 대한 도움의 정도($P=0.01$), 가상제작 담배갑 사진경고의 금연에 대한 도움의 정도($P=0.018$), 부착했을 때의 효과에 대한 평가($P=0.012$), 필요성($P=0.021$)에 대해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론: 현행 담배갑 경고문구에 대한 흡연자들의 인식도는 높으나 금연에 실제 도움을 주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사진 경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적인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서구에서 시행하는 담배갑 경고사진의 게시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흡연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따라서 금연광고의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중심단어: 금연, 담배갑 경고문